

# 아팔라치아 삼림 관리 방법을 개선하다



아팔라치아의 숲을 보존하기 위해, 에이버리데니슨은 열대우림연합 (Rainforest Alliance) 및 여러 기업들과 함께 더 많은 삼림지역이 FSC 인증 하에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이야기

미 남동부 아팔라치아 산맥 남쪽 및 중앙 숲 지역의 상당부분은 수 천명의 개인 소유로, 평균 몇 십 에이커 이하의 소규모 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재 회사들과는 달리, 아팔라치아 숲의 소유주 대다수는 삼림을 돈벌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숲은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공간이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완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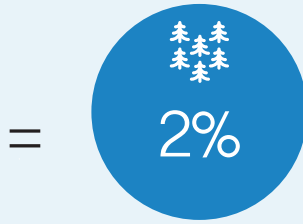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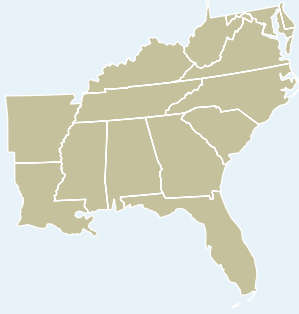
최근까지 이 지역의 땅 소유주들은 평생 한 두 번 이상의 벌목은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택 건축 및 목재 판매를 위해 대량의 벌채를 원하는 개발업자들이 소유주들에게 땅을 팔도록 부추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숲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숲이 가진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 에이버리데니슨은 열대우림연합, Staples, Columbia Forest Products, 제지회사 Domtar 등이 함께하는 파트너십인 아팔라치아 삼림 연합(Appalachian Woodlands Alliance)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남부와 중부 아팔라치아의 삼림 소유주들이 FSC 방침에 따라 숲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SC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임지 보호의 사명아래 설립된 독립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들은 보다 책임감 있는 삼림 관리의 기준을 세우고 인증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SC 인증은 해당 삼림지역이 환경영향성, 근로자 및 토착주민의 권리에 대한 FSC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며 관리되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보다 많은 삼림 소유주들이 FSC 인증을 받도록 설득함으로써, 아팔라치아 삼림연합은 후손들을 위한 숲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 보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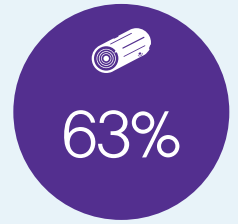
## 미국 남부에는



전세계 숲의 2%가  
위치 해 있습니다.



전세계 펄프 및 종이의  
20%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목재량의 63%가  
채취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 소유주 한 명씩, 설득의 시간이 성과로 이어지다

열대우림연합의 Richard Donovan 부의장은 아팔라치아 삼림을 FSC 관리 지역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별 소유주들과 일일이 연락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합은 각각의 소유주를 만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삼림을 관리하고,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기존의 벌목을 통한 삼림이용에 못지않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소유주들에게 단순히 ‘목재를 파실 때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숲을 관리하고 FSC 인증을 받는 것이 본인들의 이익에도 가장 부합하는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죠. 그들이 ‘이거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라고 수긍할 수 있도록요.”

본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지속가능한 임업 비즈니스를 도와줄 현지 삼림관리자와 기존 FSC 인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적, 제도적 자원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지의 임업 관계자들이 ‘홍보대사’의 역할을 맡아, 경제적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본 프로젝트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열대우림연합 프로젝트 매니저 Andrew Goldberg의 말입니다. “이 숲의 야생환경은 지역사회 문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역은 사슴 사냥이나 조류관찰 등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도 거기에 있죠. 동물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거주지를 보존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

에이버리데니슨은 수년 간 열대우림연합과 협력해 왔습니다. 이 훌륭한 NGO의 도움으로 당사는 ‘책임감 있는 종이원재료 정책’을 입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펄프 및 목재 섬유, 종이의 공급처를 명확히 하고, 최대한 재활용소재나 FSC 인증 업체에서 소싱 된 섬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까지 종이 원재료의 70%이상을 FSC인증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두라스에서는 에이버리데니슨 재단을 통해, 열대우림연합의 지속가능 임업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구매 및 지속가능 부문의 부사장 Ronald Simon은 일련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지속가능한 종이공급에 달려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지구의 미래는 건강한 숲을 유지하는데 달려있죠. 열대우림연합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활엽수 견목으로, 사실 에이버리데니슨에서 사용하는 종이 원재료와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환경 자원이자 경제적 자원으로 이 원목의 중요성에 대해 온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 지속가능 부문 이사 Renae Kulis는 아팔라치아 삼림연합과의 협업을 당사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공급생산망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좋은 사례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공급회사들이 이러한 부분을 알아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끊임 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업계와 함께 협업하는 것 만이 보다 책임감 있게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Label and  
Packaging Materials

North Asia  
5th Floor, Hongye Park  
1801 Hongmei Road,  
Xuhui District 200233,  
Shanghai, China  
+86 21 33951888

South Asia Pacific and  
Sub-Saharan Africa  
460 Alexandra Road,  
PSA Building  
#28-02/03, Singapore 119963  
+65.6349.0333

Europe  
Willem Einthovenstraat 11  
2342 BH Oegstgeest  
The Netherlands  
+31 85 000 2000

Latin America  
Rodovia Vinhedo-  
Viracopos, KM 77  
CEP 13280-000  
Vinhedo - SP, Brazil  
+55 19 3876-7600

North America  
8080 Norton Pkwy  
Mentor, OH 44060  
800.944.8511